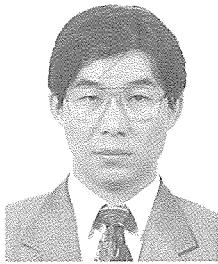




제6차 아시아 심혈관외과학회

● 일시 : 1998년 2월18일~20일 ● 장소 : 일본 동경

지난 2월18일부터 3일간 일본 동경 게이오플라자호텔에서 아시아의 심혈관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아시아 심혈관학회의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대회 첫날엔 서울대 서경필교수가 한국의 심혈관외과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 한국측에서 11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필자인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이재원교수는 「대동맥 판막 치환후 좌심실근 비후의 변화」라는 논문을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李在源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 교수〉

제6차 아시아 심혈관외과학회 (ASCVS)는 1998년 2월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동경의 게이오플라자호텔에서 제26차 일본심혈관외과학회와 공동 개최되었다.

일본 순환기병센터 방문

필자는 Maze술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일단 오오사카의 일본국립순환기병센터를 방문하였다. 공항에는

필자가 토론토 유학시절에 같이 근무하였던 겐지 미나토야선생이 마중을 나와 오랜 우정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순환기병센터에서 부원장이신 소이치로 기타무라선생과 Maze술식으로 유명한 요시오 코사카이선생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필자가 한국에서 최초로 심장이식을 시행한 바 있는 서울중앙병원에서 방문하였으며 국내에서 최대의 심장수술 시행병원이라는 사실과 함께 현재까지 45예의 심장이식을 시행하여 1예의 수술사망률을 기록하는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하여, 현재 겨우 뇌사가 법제화되었으나 아직 심장이식을 시작하지 못한 일본 석학들의 부러운 시선과 찬사를 받았다.

이어서 후미오 야마모토선생의 수술을 참관하였는데 72세 남자환자로 만성승모판폐쇄부전과 만성심방

세동, 그리고 관상동맥질환으로 승모판성형술, 관상동맥우회술, 그리고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위한 Maze술식을 시행하였다. 코사카이 선생의 변형형 Maze술식을 처음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었는데 동결절제선(cryoablation)을 매우 많이 사용하여 동방결절동맥 등의 심방동맥들을 다치지 않고 수술함으로써 수술 후 심방기능을 보호하려 한 변형된 술식이다.

저녁 6시에는 왈도박사(Dr. Waldo, 미국 Cleveland의대)의 심방세동의 전기 생리학적인 발생기전에 대한 강연과 일본 순환기병센터의 준지로 코바야시선생의 Maze술식의 결과보고와 부작용증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일본 순환기병센터는 Maze술식이 미국의 콕스박사(Dr. Cox)에 의하여 고안되고 발표된 직후부터 세계 처음으로 승모판질환에 동반된 심방세동에 이 술식을 적용하여 현재 200에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병원으로 세계적으로 이 수술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병원이다.

다음날은 아침 회진 후 도서관에서 필요한 잡지를 복사하기 위해 장시간을 보냈는데 풍부한 도서와 자유로운 열람실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방문객인 필자에게까지 무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복사의 혜택은 선진국 일본의 경제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였고 IMF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조국의 현실과 대조되어 가슴이 아팠으며 다시 한번 두주먹을 쥐고 뛰어 보자고 다짐하였다.



한국서 11개의 연제 발표

학회 첫날은 아침 8시30분부터 아시아 7개국의 원로들이 자국의 심혈관외과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으로 학회가 시작되었는데 한국측에서는 서울대학의 서경필선생님께서 열강하셨다. 학회 참석자는 일본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만과 인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소수 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1개의 연제를 발표하였다. 논문발표는 비디오를 이용한 영상발표가 86편으로 제일 많았고 구연이 74편이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영상을 이용한 외과학회가 일본학회의 특징으로서 일본의 의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좋은 아이디어나 훌륭한 수술기법을 영상으로 보고 배움으로써 일본 내에서는 각 병원간의 수술의 질적인 수준차이를 거의 없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우리 학회에서도 심각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점심시간과 저녁에는 심혈관외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도시락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강좌가 10회나 준비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최소접근술(Minimally Invasive Cardiac Surgery)은 관상동맥(이탈리아의 Dr. Calafiore)과 판막분야(미국의 Dr. Cosgrove)의 두 강좌로 매우 큰 호응을 보였고 대동맥 분야에서는 최근 시도되고 있는 경피적 시술인 Endovascular Repair가 미래지향적인 강좌로 돋보였다.

또한 영국의 버차트박사(Dr. Butchart)의 판막치환 후의 항응고제 요법은 실제적인 강좌로서 항응고제 요법의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 임상에서 중요 포인트를 지적해 준 명강의였다. 미국의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라이틀박사(Dr. Lytle)의 관상동맥 재수술의 수술수기에 대한 강좌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비교적 드문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재수술이지만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이 분야를 대비한 시기 적절한 강좌로 매우 유익하였다. 내용면에서는 필자가 자주 참석하는 미국 학회와 대동소이하였으나 초청연사들도 아시아학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서양의 질병양상의 차이와 환자군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연제를 준비하여서인지 좀더 깊이 있고 실용성 있는 토론이 가능하였다.

많은 참석자들이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질문하려고 애쓰며 연자들은 어설픈 영어로나마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애쓰는 점이 국내학회에서의 연자 일변도의 진행과 참석자들의 무질문, 무관심과 큰 대조를 보였으며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점으로 생각되었다. 첫날 오후에는 필자의 연제인 '대동맥판막 치환 후 좌심실근 비후의 변화'를 동경대학의 코츠카선생의 사회로 발표하였다. 대동맥판막 치환후의 예후는 좌심실비대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소실되느냐에 좌우되는데 작은 19mm 기계판막의 수술 후 판막기능은 아직 정설이 없어, 체구가 큰 서구의 환자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금기시되고 있으나 체구가 작은 동양

에서 어떤 것인가를 필자의 치험에서 연구한 논문으로 코츠카선생, 동경의과대학의 쿠도선생과 토론이 있었으며 추후에 운동부하심초음파로 최종 결론을 내려 수년 내에 추가로 보고하기로 하였다.

차기대회는 싱가포르서 개최

둘째날에는 필자의 전공분야인 판막질환에 대한 비디오 연제가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으며 필자도 몇몇 연제에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둘째날 저녁에는 학회 참석자들을 위한 만찬이 있었는데 아시아 각국의 민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각국 지도자들의 축사와 차기 개최국인 싱가포르의 차기 학회에 대한 소개와 초청사가 있었다. 내년 학회는 '2000년을 향하여'라는 표어를 내걸고 새로운 형식으로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은 증례 중심의 영상연제로 일본 학자들이 발명한 수술기구와 새로운 수술기법의 발표가 주류를 이루었다. 모방을 극복하고 신기술을 만들고 있는 일본학자들의 저력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수술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체계적인 임상 및 기초의학연구에 매진할 때가 되었음을 절감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너무 미국학회만을 고집하고 우리 한국이 소속되어 있는 아시아학회와 유럽학회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며 앞으로 아시아지역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㉞